

## 김성민 대표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



### “출신교·학점보다 경험·인격 중시”

“기업들은 직원 채용 때 출신 학교나 학점보다 실무 경험과 인격을 더 중요시합니다.”

헤드헌팅업체인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 김성민 대표가 제시한 인재 요건이다. 김대표는 “면접 때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가, 예의범절을 갖췄는가 등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력은 한 직장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해야 제대로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언어 능력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지망자를 찾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김대표는 “면접 때 해당 분야를 얼마나 잘 아는지 평가한다”며 “전자면 전자, 증권이면 증권 업계의 주요 이슈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각각 한 장으로 정리하고 이력서의 경우 실무 경험과 무관한 사소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장점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면접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해당 기업의 역사나 주요 상품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표는 “희망 연봉은 적당한 수준으로 밝히면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본사를 둔 제일컨설팅은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리프스에 미국법인을 운영 중이며 김대표가 법인장을 겸하고 있다.

이현상 기자